

書評

尹起重 著 數理統計學, 서울 : 博英社, 1974

582面 크라운版

統計學의 數理論을 展開한 우리의 著書가 별로 없는 터에 尹起重教授의 「數理統計學」이 博英社를 通하여 刊行되었다.

이책은 微積分에 관한 數學知識으로 能히 讀破할 수 있도록 順次的으로 차분하게 記述되어 있다. 集合論의 概念에서부터 시작하여 確率論의 基礎事項을 친절하게 說明하고 連續確率變數의 分布, 確率標本, 點推定, 多變量正規分布, 各種統計量의 分布, 統計的 假說檢定, 區間推定, 그리고 끝으로 回歸와 相關分析에 이르기까지 各種項目에 걸쳐서 統計數理論이 빠짐없이 論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보통 數理統計學 入門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非中心 카이自乘分布 非中心 F -分布, 非中心 t -分布 등 多變量統計解析에 있어서의 諸基礎定理가 論述되어 있어서 이책의 內容을 더욱 豐富하게 만든 것이 또 다른 特色이라고 하겠다. 應用統計學 책에서 잘 理解가 안되는 數理論이 있을 때는 이책을 펼쳐보면 그에 대한 解答을 發見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程度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數理統計學의 教材로서 適當할 뿐만 아니라 統計學을 自習하려고 하는 讀者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어떤 책이든 刊行된 後에 살펴보면 未洽한 點이 發見되게 마련이다. 이책도 그例外는 아닌것 같아서 그 한두가지를 적어 본다.

著者가 序文에서 言及하고 있는바와 같이 記述에 있어서 文科系나 理科系의 低學年 學生으로써도 부담없이 讀破할 수 있도록 數理解析에 있어서 되도록 비약을 피하도록 意圖한努力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이것이 多變量正規分布의 解說에 까지는 관철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이다. 變數變換方法에 대한 좀더 자세한 解說, 그리고 빅터와 行列에 관한 定義와 演算法이 좀더 자세히 說明되어 있었으면 한다.

또 著者가 序文에서 밝힌바와 같이 講義案을 加筆한 것이라는 點을 充分히 諒解하여야 되겠지만 數理統計學 全般에 대하여 是是非非하는 見地에서 明確한 定義를 提示하면서 組織的으로 著述되었드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項目羅列式 解說書라는 評이 나올것도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本書는 어디까지나 初心者들에 대한 책이므로 이와같은 形式의 책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點을 감안할때 本書의 存在意義는 그것으로 充分한 것이다. 結論的으로 著者の 실을 모르는 精力으로 600面이나 되는 數理統計學으로

書를 훌륭하게 著述해낸데 대하여 敬意를 표한다. 그리고 이책이 既成 統計學者나 統計學徒들에게 統計學研究에 대한 意慾을 둑구어 주고 우리나라에서의 統計數理論 普及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바이다.

白雲鵬
高麗大學校 統計學科